

2028 대입 중앙대 입학설명회를 다녀와서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내신 평가 체제가 5등급제로 전환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입시 환경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앙대학교 입학처는 'CAUF ORMLA 2028: UNVEILING'을 통해 대학의 고민과 그에 따른 해법을 전격 공개했다.

중앙대학교는 변별력 확보와 평가의 신뢰도 그리고 고교 교육과의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500여 명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최적의 공식을 도출해 냈다. 이는 수시와 정시가 유기적으로 만나고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앙대학교는 시행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입시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학종4'로 명

명됐던 전형 명칭을 '수능 67'로 변경했다. 또한 서류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능 반영 비율을 67%로 상향 조정하고 서류 비중을 33%로 낮춰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돕기 위해 계획했던 'CAU 수능 케어(중수케)'는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며 전형의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수시 모집의 핵심인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교과는 교과답게'라는 원칙 아래 505명을 선발한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변별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는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한 변별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100% 정량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영 교과 등급이 표기되는 전 교과를 포함해 고교 생활 전반의 성실도를 평가에 담아낸다.

중앙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발맞춘 세 가지 세부 전형으로 분화됐다. 계열 교과 탐구 역량을 중시하는 'CORE'는 2단계 면접을 통해 학생을 심층 검증하며, 전 교과와 균형 잡힌 성장을 평가하는 'ALL'은 서류 100%로 선발한다. 수능 경쟁력까지 갖춘 인재를 위한 'UP'은 서류 10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결합했다.

논술 전형은 482명을 선발하며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 전형을 이원화했다. 신설된 '재학생 논술'은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수능 전 고사를 실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합격의 문을 넓혀주었다.

정시 모집은 수능 과목 개편이라는 기본 토대와 고교학점제라는 심화 환경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두 가지 트랙을 설계했다. 수능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하고 서류 33%를 합산하는 '수능 67' 전형은 수능의 자격고사화 경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모델이다. 반면 기준치점 '표준점수'를 89% 반영하고 출결 11%를 합산하는 '수능 89' 전형은 수능 점수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적합하다.

설명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개근의 가치에 대한 중앙대학교의 남다른 철학이었다. 모든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마지막 단계에 '개근 학생 선발'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중앙대 전형안의 핵심은 학생의 역량 궤적에 따른 지원 트랙의 철저한 세분화에 있다. 정량적 우위를 점한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원칙을 활용하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실손보험과 정상화 과제



김 주 형
(금융부)

실손보험 개혁은 필요하다. 과잉 비급여를 줄이고, 계속 오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손의료 외곽의 통로가 되는 구조를 손보자는 방향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 개혁의 다음 수단으로 '계약 재매입'이 거론되는 순간 질문은 달라진다. 실손을 정상화 하겠다면서 왜 가입자에게 먼저 "좋은 계약을 정리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에서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약 1600만명이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는 계약

재매입과 비급여 보장 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구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큰 방향은 던졌지만 정작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 할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흐린 상태다.

문제는 이 구상이 소비자에게 '선택권 확대'보다 '선택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보장 조건이 지금보다 넓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일정 보상을 받고 갈아탈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우량계약부터 빠져나가면 남은 계약의 손해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고, GA 채널의 부당 승환이나 절판마켓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만 아니라 또 다른 혼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 짚짚한 대목은 개혁의 방식이다. 실손

보험의 문제는 과잉진료와 낮은 자기부담, 왜곡된 비급여 이용 구조에서 시작됐는데 해법은 정작 계약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당국 입장에서 재가입 주기가 없는 옛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상품만 내놓아서는 구조 개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되사는 방식'이 곧바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그 개혁 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을 되사는 방식의 우회로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재매입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계약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GA 채널의 부당 승환을 어떻게 막을지, 전환 이후 남은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어떻게 완충할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6일 (음 2월 2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마세요. 72년생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하기에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게 좋습니다.



50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2년생 직장에서 큰 위험이 있습니다. 74년생 승진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86년생 막혔던 금전운이 풀립니다.



51년생 일에는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기본 소식이 들려옵니다.



52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4년생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76년생 괴로운 일 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88년생 귀인을 만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53년생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65년생 빌린 돈을 돌려받습니다. 77년생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89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54년생 전체적으로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66년생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더욱 자중하세요. 78년생 되도록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90년생 물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뜻밖의 양심고백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우연한 일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79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장을 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56년생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8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0년생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9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여행하기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69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습니다. 81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93년생 학업에 몰두하세요.



58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82년생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4년생 대중교통이용을 조심하세요.



59년생 손실함 있고 이로움은 적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83년생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95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착각과 추락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모습을 마스크를 통해 접하곤 한다. 어제까지는 큰소리치다가 뇌물 수수나 갑질 의혹으로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큰 힘을 갖게 되거나 큰돈을 쥐게 되면 기묘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지금 우리는 이 권세와 풍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이 그것이다. 자기의 칼이 무뎠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발아래 었드린 이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오만함,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는 없다. 오죽했으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을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의 화무십일홍은 세상살이의 이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 화려하게 핀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기 마련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치다. 역사에는 화무십일홍을 증명하는 사례가 숭하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부터 근대의 독재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러한 권력욕과 오만은 특정한 에너지가 과도하게 강할 때 많이 나타난다. 사주에 관살이 지나치면 권력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는 욕망이 강하다. 비겁이 강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욕망과 착각은 좋은 운세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 권력욕이 강하고 오만한 마음이 쉽게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힘을 갖게 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머지않아 추락하고 만다. 발발을 살피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추락을 막을 수 있다. 큰 힘과 큰돈을 손에 넣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3	7	6
		1		3	
8	3		4	5	
	3				7
7	8		2	5	3
	5			6	
		4	1		3
		4		2	
3	2		6		5

1				9	4	8
7				8	9	5
			4			7
3	1		5			4
	9					8
4			1	5		7
	1			5		
	4	3		9		5
9	2	1				6

9	1	7	8	9	6	2	2	8
2	9	6	2	9	8	7	8	1
8	8	2	2	1	7	9	6	9
1	7	9	8	2	8	6	9	2
8	6	9	7	2	9	8	1	2
2	2	8	1	6	5	8	9	7
7	2	1	9	7	2	9	8	8
6	2	8	9	8	1	2	2	6
9	8	2	6	8	2	1	7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